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34호 현대불교 29  
2011년 5월 4일(음 4월 2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우리 마음의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밝힙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부처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날을 맞아 우리는 밖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탄생시켜 준 부모의 은혜와 법의 부모의 은혜도 돌이키고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각자 마음에도 관(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중생들이 둘이 아니고 하셨습니다. 또 육의 부모들도 자식과 둘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우리의 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 주시고, 또 뜻을 일러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 하나라도 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돌이키고 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켜신다면 그 촛불이 바로 바깥으로는 형식이 되지만, 형식만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안으로는 진짜 촛불을 켜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촛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월초파일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생시에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상성도(八相成道)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솔 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향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여덟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로써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모든 과정과 그 시대에 간곡하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는 수행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무사유(四無四有)가 돌이키고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팔상성도의 그 여덟 가지 문제를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써 총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자체를 빼 한 무더기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생자부(四生慈父)라고 하는 그 뜻도 역시, 항상 들어서 아시다시피, 태로 낳고 알로 낳고 화(化)해서 낳고 질척한 데서 낳고 하는 사생들을 모두 자기 아님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도량에 있는 것을 제시했고, 또 모든 것을 돌이키고 흡수해서 인연을 지으셨으니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모두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불가에선 나유타겁이라고 합니다. 나는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돼 보기도 하고 자식이 돼 보기도 하고 형제가 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 근본으로 인해 진화를 해서 바로 형성되고 또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수억겁 광년을 거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현재 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바로 그 뜻을 잘 파악해서, 바깥으로 그 탄신을 기리고 팔상성도를 이룸으로 기릴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한다면 그것이 곧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팔상성도를, 그태어나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알면서 바깥으로 끄달리면 아니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너부터 알아야 내 마음도 알아서 둘이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일체 사생이 너와 더불어 둘이 아니니라." 했던 말입니다. 그러한 고로 이것은 내 마음의 부처님을 항상... '주인공' 하면은 벌써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부모도 법의 부모

도 일체 가정의 모든 분들도, 한 식구 한 형제라 할지라도 앞에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거기다 놓고 합류시켜라. 하나로 만들어라. 동일한 한마음으로 결부를 시켜라. 그렇게 된다면 결립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처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저 요만한 걸 보면 보는 대로 걸리고, 들으면 듣는 대로 걸리고, 남이 울면 울어야 하고 웃으면 웃어야 하고, 나하고 더불어지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원숭이같이 따라간다면 그런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은 99%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1%를 넘지 못해서 우리는 중생으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공(空)했다. (팔을 짚으면서) 이 보이는 게 공

했다. 공(空)한 것이 색(色)이고 색이 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나 하면, 항상 여러분한테 제가 말을 해 드리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서 그냥 찰나찰나 듣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하고 넘어가고, 만나고 넘어가고, 움쭙거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때 놓을 뿐이지 앞뒤가 없다.' 하고요. 육조 스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힘이 없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이것 보고 저것 듣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이르고 저거 이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리 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과거로 흘러가고 흘러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무슨 애착이 붙고 뭐가 붙을 게 있어서 그렇게 업을 짓습니까? 잘된 업을 지어가지 못한 업을 짓는다면 안 될 뿐 아니라, 잘된 업도 못한 업도 돌이키고 그냥 놓고 넘어가야 마음공부에 직교소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생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일이 돌아오면은 한 상 받고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를 형성시킨 장본인인 법의 부모와 몸을 빌려서 나를 낳아 준 육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때가 없었어. 그래서, 예전엔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여러분이 근래에 뭐를 갖다 주면은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부모의 같은 자식, 나도 역시 똑같이 한 법의 부모의 자식으로서 그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고맙고, 허허...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공부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 배웠다 하면 내면 속에 들어 있는 이 광대무변한 뜻을 영 풀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유식하게 잘 배웠고 못 배웠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월초파일이면 촛불을 켜시더라도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둘이 아니게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과 둘 아나게 믿으세요

29면에서 계속

켜야죠. 내 주인공이 법의 부모니까요. 그래서 불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父)와 자(子)가 상봉해야만이 저승의 공부를 한다.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공부를 한다.” 하고요. 부의 손을 잡아야만 지는 바로 무(無)의 세계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봉치 못하면 아니 되는 거죠. 법의 부모란 나를 형성시켰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자기의 근본 뿌리인 불성입니다.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의 원래, 법의 부모니까요. 육신을 낳아 준 이는 육신의 부모고요. 그것은 내 근본의 법의 부모로부터 그 육의 부모를 빌어서 낳은 거지 내 영원한 그 자체의 불성이 아니었다면 그 부모도 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유정이 있어야 무종이 있다 해입니다. 무종이 있어야 유정을 생상해서 이 공간에 모두 천차만별로 생명들이 살게끔 하는 것이죠. 그 생명들이 살지 않는다면 무종도 없죠. 그러니까 유정 무종이 둘 아니게끔 항상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사월초파일에 나의 주인공인 법의 부모와 육의 부모를 둘 아나게 (함정하시며) 촛불을 켜 드린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촛불을 안 켜도 그거는 우주 법계에서 다 알고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한 까닭에 현재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행을 안 한다면 그거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불성이 여러분한테 자기가 진짜로 있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여여하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만법을 들고 낸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것은 불성인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성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자기 불성이 아니라면 자기 육신도 없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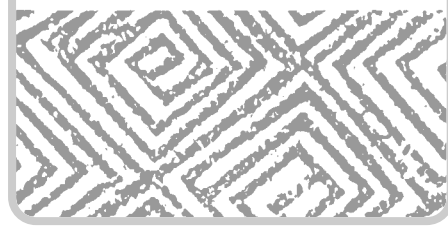
자기 불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있는 거니까,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 불성이 있는 증거라는 걸 알고 그 불성을 믿고 거기다 의지를 하고 즉시 거기다 모든 걸 놔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불성이 있어서 내가 있으니까 나는 불성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는 반면에 불성을 여여하게 돌아가게 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까?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면서

마음에 걸려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게끔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걸려서 헤어질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여하다고 말은 안 했어도 자기 불성이 있어서 여여하게 살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면서.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천차만별의 작용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보면 듣고 내고, 들으면 듣고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둘아나게  
한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켜다면



또 내고, 항상 이렇게 들고 내고 들고 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만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고 내는구나!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도 없고 걸림도 없이 그렇게 들고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몸뚱이 속의 의식들이,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이 모두가 얽혀서 마음을 통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그걸 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그냥 현실에 나오는 거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팔자 운명을 버리지 못한다고. 팔자 운명을 자기가 좌우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산다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그저 밥 주면 밥 먹고 똥 마려우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냥 이러면 되지, 그렇게 짜드러 내가 가져야겠다 하는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태산을 벌어도 뉘어도 이젠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 거라고 하질 말고 주인 거라고 생각해서 다 탁 털어 버리고 그냥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짜드러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테 쓰일 일도 없고, 꼭 쓸 데다가 써지고 남한테 꾸러 안 가니 얼마나 여여하고 좋은 일인데, 꼭 욕심을 부려서는 흠집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나가게 하고, 허허하... 돈 잘못 쓰게 하고 자기 몸 상하게 하고 식구들 수대로 애타게 하고, 이게 뭐니까?

부처님이 행하고 나오신 그 과정을 볼 때에 어저께 없는 오늘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나오는 것이더라는 얘기도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지금 마음 공부 하시는 여러분과 같이 보살행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요다음에 나가서 석가가 되거라.’ 했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자기가 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거지 누가 주고 뺏어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진 거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거나 왕을 한다면 대통령을 하고도 그 대통령 한 값을 끄트머리 가선 전부 다 물어내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 흠박 게워 나와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를 보면서 그걸 모르신다면 안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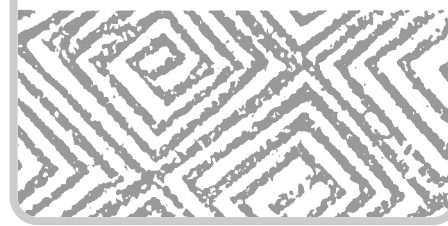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밝힙니다. 사월초파일이면 마음의 촛불 하나가 현상계에 보이게 불을 밝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신을 축하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 주되 같이 마음을 내자, 마음의 불을 켜자 하는 뜻에서 이 마음의 불을 켜는 거지 그냥 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데서 켜는 불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 꺼지지만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다가 좀 뭐가 안되면 ‘아 이구, 주인공 믿고 관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돼. 뭐 말라빠져 죽은 것이 주인공이야.’ 이러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 뭐가 안 되면 그냥 울퉁해서 ‘어이, 주인공을 찾지도 아무 소용 없는데 그까짓 주인공은 찾아서 뭘 해’ 하고 이렇게 뱉어 버리는 마음이 아마 배우는

과정에서 울컥울컥 올라오지 않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에게 무종이 있었기 때문에 유정이 나왔다, 유정체가 나왔다. 이런 소립니다, 유정체! 그러니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종교라는 이름이 무슨 말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뭐가 안된다고 해서 ‘에이그, 그놈의 거,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 한다면 자기 육체와 더불어 같이 그냥 육을 해서 던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체를 떼어 놓고가 아니에요.

그 촛불이  
바깥으로는  
형식이 되지만,  
형식만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안으로는  
진짜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넌 모르니까 한 방 더 맛고 가야 돼.’ 하고선 한 방 더 때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시련이 닥칩니다. 네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테스트를 좀 해 보려고 하나냐 넌 더 비비 꼬아져서 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한 때 때려 주면은, 아주 죽겠으니 그 뒤에서야 겨우 ‘어이구, 그래도 주인공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도 주인공을 찾아야 지 누굴 찾았습니까?

부처님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과 둘 아나게 믿으라고 한 거지, 형상은 언제가는 부서지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형상이나 내 형상이나 둘이 아니고, 부서지는 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서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둘이 아닌

그 마음이 바로 부서지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로.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듣는 사람에게 의해서 저렇게 말씀 하셨다고 써 놔거든. 또 허허하... 그러니까 이거는 편지하는 분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해 놓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 놓고 그러지마는 해석을 어떻게 해 놔든지 그 중심의 뜻만 알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나오니까, 남이 어떻게 해 놔든지.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집결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만생과도 같이 가설이 돼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그런 걸 의심치 않으셔야 될 겁니다. 세상을 모두 돌아보세요. 막 명명 짓는 개한테도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 주면 그거 먹기 위해서 안 짓고, 그 뒤에 그걸 먹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면 짓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부처님께서는 동글어도 맛고 모가 나도 맛고, 길어도 맛고 짧아도 맛고, 작아도 맛고 커도 맛고 이러니까 사생자부시죠. 그러니 둘이 아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하고 뽀뽀 우기는 수행자들이나 여러분을 볼 때, 좀 섭섭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허허하...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차원으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선택이 전생애 수기 받았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요다음에 만민을 다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가 돼라.’ 하는 과거에 주어졌다면 대통령을 해도 손색이 없지만... 대통령을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일체 만물의 마음이 모두 동일하게 엮여 주니까 하는 것마다 어렵지 않게 해서, 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국민이 아주 살기가 쉽고 항상 풍년이 들고 항상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을 입은 사람이라야만이 이 세상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나오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97년 5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든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남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주)현대에너지텍 2011년 최신형

**농협농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농자경영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1용 ~ 20용까지

전용기(11용)    전용기(22용)    전용기(33용)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를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업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100g    330g

산차 45,000원 / 38,000원    산차 70,000원 / 65,000원    병차 185,000원 (600개 한정수량) / 99,000원

• 판매원 : **마 하 료 02)732-1520**  
• 제조원 : 다영보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ngtea.co.kr / www.다영보이.kr